

# 17개 은행, 작년 출연금 2200억

대학·병원·지자체 등과 주거채 계약 맺으며 내  
은행법 개정 따라  
3만원 초과 금전·물품·식사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제공 땀 보고해야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고객 확보를 위해 출연금(기부금 포함) 명목으로 낸 돈이 연간 2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일반은행이 대학·병원·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2000억원, 2014년 2100억원으로 은행들이 낸 출연금은 한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일부 은행들이 대형 거래처를 뚫기 위해 지자체, 대학 등과 주거채 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거액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2009년 은행들의 과다한 금융 제공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집행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은행들을 상대로 지도했다.

하지만 자율 규정인 탓에 불건전 영업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



두 제품의 차이는? 이동통신사가 갤럭시노트7 제품 교환을 시작한 어제 오전 서울 강남구 SK텔레콤 매장에서 SK텔레콤 관계자들이 갤럭시노트7 기기교환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3사는 '3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기존 개통된 갤럭시노트7을 배터리 결함이 해결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전했다.

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7월30일 시행된 만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 개정 후 은행 임직원은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 초과 금전·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이 넘는 경조비·조화·화환을 보낼 때 준법감시인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과거 5년간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넘으면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해야 한다.

민약 이를 위반하면 개인(임직원)은

250만원, 기관(은행)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간 500만원을 넘는 이익을 제공하면 은행 자체적으로 별도 수익 평가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 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보고) 및 공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제공은 비용증가를 초래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며 "은행들의 사회공헌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소비자(차주)가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 어제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

### 미 금리 인상 기대감...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변동 제한 전망

미국의 9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118.8원)보다 6.7원 오른 1125.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추석 연휴 기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화 강세 흐름이 나타난 영향이다.

NDF 시장에서 달러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된 점을 반영해 강세를 나타냈다.

연휴 중인 16일 발표된 미국의 8

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보다 0.2% 상승, 예상치인 0.1%를 웃돌았다. CPI의 호조는 미국 내 소비가 회복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날 외환 시장에서 큰 폭의 변동은 제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는 20~21일(현지시간)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와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진행된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날 미국의 9월 주택시장이수가 공개되면 날뛰기 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성운 현대선물 연구원은 "반등을 대기하던 대기매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1130원선 전후에서 방향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현대·기아차, 8월 유럽 판매 전년비 14%↑

### 총 5만5923대 판매... 점유율 6.9% 4위로 상승

현대·기아차가 지난 8월 유럽 시장에서 두자릿수 성장하며 판매 순위가 4위로 뛰어올랐다.

19일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8월 유럽 시장(EU)에서 전년 동월 대비 14.1% 상승한 총 5만5923대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차가 3만73대, 기아차가 2만5850대를 팔아 각각 전년동기 대비 11.7%, 16.9% 늘었다. 유럽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 성장세인 10%를 웃돈 수치다.

점유율 순위는 지난해 8월 7위에서 올해는 4위까지 상승했다. 지난달 현대·기아차는 점유율이 6.9%(현대차 3.7%·기아차 3.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확대되며 폭스바겐그룹(25.9%), 르노그룹(9.5%), PSA그룹(9.1%) 뒤를 이었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누적(1~8월) 유럽 시장 판매는 총 61만116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다. 투싼, 스포티지 등 SUV 차량이 유럽 시장 판매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유럽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는 지난달(81만9126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며 성장세로 돌아섰다.

유럽 자동차시장은 올해 6월까지 월별 판매량이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직후인 7월 1.4%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뉴시스

## 23일 금융노조 총파업... "은행 이용 다소 불편할 듯"

### 성과연봉제 저지 등 목표 10만명 참여 예고... 시중은행 참여율은 미지수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이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중은행 영업점의 업무가 전면 마비되는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노조는 노조원 10만명이 참여하는 파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시중은행의 참여율은 미지수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남겨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업무처리 속도는 평소보다 늦어질 수 있다.

◇"파업 규모 예상 불가능하지만 대응체계 갖춰"

금융노조는 오는 23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고 2

차·3차 총파업 의결도 진행한다.

총파업의 목표는 ▲성과연봉제 저지 ▲관치금융 철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특히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34개 금융노조 지부는 총파업이 진행되는 하루 동안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대고객 안내문을 은행 영업점에 게시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총파업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객의 불편을 감수하고 영업점을 비우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로 총파업이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혼란에 대비한 대응체

계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9월 금융노조 총파업 당시 시중은행의 참여율은 10%를 밑돌았다.

이번 총파업의 화두인 성과연봉제는 은행 직원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만큼, 2014년 파업보다는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노사 점진적...2차·3차 총파업도 가능

현재 금융권 노사의 산별교섭 틀은 깨진 상태다.

금융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권이 금융노조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임단협 파트너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를 사실상 해체했다.

사측은 단위노조와의 개별협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측은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순이자마진(NIM)이 2005년 2.82%에서 지난해 말 역대 최저 수준인 1.60%로 떨어졌다. 동기간 총이익 대비 임금지급은 6.3%에서 10.6%로 상승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후선업무를 맡은 직원과 판매,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 간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공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불안전 판매에 매달리게 되고 실적이 나지 않는 공적업무는 등한시 될 수 있다.

금융노조는 오는 20일 오전 총파업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삼성, 중국서 갤럭시 노트7 1858대 리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판매된 갤럭시 노트7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삼성(중국)투자유한공사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 리콜 계획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7월 20~8월 5일 사이에 제조된 일부 갤럭시노트7 제품으로, 중국 내에 1858대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가 리콜하기로 한 제품은 9월1일 정식 판매 전 구형폰을 신형폰으로 교체하는 이벤트를 통해 체험용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SNS에서는 갤럭시 노트7 폭발 재보급이 이어졌다.

사건과 함께 제보된 2건의 중국내 폭발사태는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생산 기종으로 알려져 파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